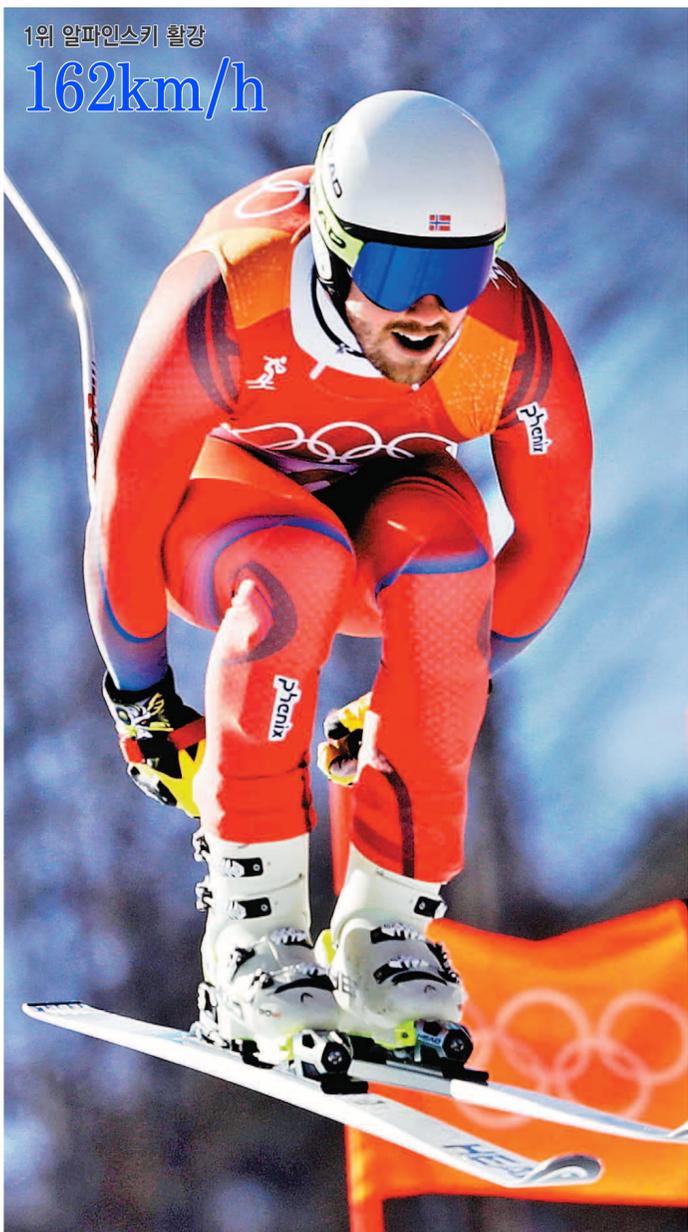


# 최고시속 162km...알파인스키 활강 '스피드 금메달'



2013년 월드컵 클라레 161.9km가 최고 봅슬레이 4인승은 비공식 152.9km 기록 루지, 사망사고 이후 속도 135km로 제한 스킨레톤은 순간 최고속도 130km에 달해

스포츠의 치명적인 매력 중 하나는 '속도'다.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만으로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스피드와 종목의 인기가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승패가 갈리는 극한의 속도전쟁은 전술에 가까운 짜릿함을 선사해준다. 물론 선수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설상(눈 위)과 빙상(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미국의 야후스포츠가 20일 동계종목의 속도를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고 스피드 종목은 알파인 스키(활강)다. 썰매를 타고 경쟁하는 종목, 즉 봅슬레이와 루지, 스킨레톤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사람과 장비가 함께 움직이는 속도를 비교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속 170km를 웃도는 아이스하키 펙의 속도는 제외됐다.

알파인은 스키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속도로 우열을 가린다. 활강

과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기분이 없이 곧장 내려오는 활강의 속도가 압권이다. 스피드의 경연장이라고 보면 된다.

활강은 통상적으로 시속 140km 전후로 쪼뼛다. 현재까지 최고기록은 2013년 스위스 벵겐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요한 클라레(프랑스)가 기록한 시속 100.6마일(161.9km)이다. 썰매종목에서 100마일을 넘었다는 기록이 없어 활강이 최고로 꼽히는 것이다.

썰매종목 중에서는 봅슬레이(4인승)의 속도를 최고로 친다. 일반적으로 루지가 더 빠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두 종목 모두 비슷한 속도다. 다만 썰매종목 중 4명이 한 팀을 이루는 건 봅슬레이가 유일하고, 같은 트랙이라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봅슬레이의 최고 기록은 시속 125마일(시속 201km)로 전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같은 기록을 작성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소문일 뿐이다. 야후스포츠는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시속 95마일(시속 152.9km)을 기록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이것도 공식 기록은 아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높은 루지는 언뜻 보면 쉽고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정면을 볼 수

없다는 건 공포이자 위험이다.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 탓에 사망사고도 일어났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훈련 중이던 조지아의 노드르 쿠마리타시빌리가 곡선코스에서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썰매에서 튕겨져 나와 개막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목숨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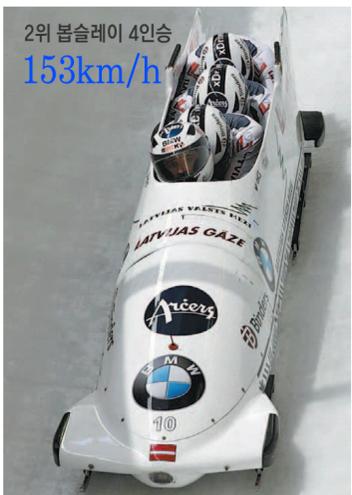
사고 이후 국제스키연맹은 속도 상한선을 135km 안팎으로 제한했고, 2014년 소치올림픽 때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다.

윤성빈의 금메달로 우리에게 친숙한 스킨레톤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다. 순간 최고 속도는 130km 내외다. 썰매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속이 붙기 때문에 무게 규정이 엄격한데, 썰매와 선수의 체중을 합한 최대 중량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를 넘을 수 없다. 윤성빈은 2차 시기에서 시속 129.3km를 기록했다.

야후스포츠가 매진 동계스포츠종목의 스피드 랭킹은 1위 알파인 스키(활강), 2위 봅슬레이(4인승), 3위 루지, 4위 스킨레톤, 5위 스노보드(평행대회전), 6위 스키점프, 7위 프리스타일스키, 8위 스피드스케이팅(장거리), 9위 아이스하키, 10위 피겨스케이팅 등이다.

하지만 위의 속도와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계종목은 경기 당일의 트랙 상태나 기온, 바람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미국의 야후스포츠 조사에 따르면 동계스포츠의 많은 종목 가운데 알파인스키 활강~4인승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사진 왼쪽부터) 순으로 스피드가 빨랐다. 스키의 활강은 최고시속 160km를 넘고 평균 140km로 1위를 차지했다. 봅슬레이는 루지와 비슷한 스피드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물리학의 법칙에 따랐다. 루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의 사고 이후 속도 상한선을 135km 안팎으로 제한했다. 스킨레톤의 순간 최고속도는 130km 내외다. 아이언맨 마스크를 쓴 윤성빈이 얼음 위를 질주하고 있다. AP뉴스·연합뉴스

## 성적 지상주의·후진적 마인드...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

**권혁신의 '빙상의 전설'**  
빙상 칼럼니스트 '빙상의 전설' 저자

2월9일 개막한 2018 평창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았다. 사상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4명의 선수가 출전한 대한민국은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등 빙상 종목에만 국한됐던 메달 획득이 윤성빈의 스킨레톤 금메달 획득을 통해 썰매 종목으로까지 넓어졌다는 면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 ● '노선영 사태'가 남긴 것

하지만 대한민국의 동계스포츠는 여전히 의문부호다. 설상종목 및 아이스하키에선 세계 최하위권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중 일부 메달 획득이 유력한 종목 외에는 TV 중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매스컴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바이애슬론에 출전한 귀화 태권전사 랍신의 경기는 TV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뿐만 아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예선에 출전했던 여자대표팀은 팀원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노선영은 불운의 아이코이다. 그는 4회 연속 동계올림픽 출전했지만 평창올림픽 개막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미숙한 행정으로 출전이 무산되기도 했다.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권 박탈로 출전권을 얻었지만, 출전을 망설이다가 대표팀 감독의 설득에 억지로(?) 출전했다. 문체

는 그가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고 해서 선수촌을 나오면서 리듬이 깨지기도 했고, 그 이전에 팀추월 연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선영은 '2017년 12월 10일 월드컵 4차 대회 이후 팀추월 대표팀은 단 한 차례도 함께 훈련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며 '3명이 함께 뛰어야 하는 팀추월 종목 특성상 호흡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한체대 소속 선수들이 따로 훈련을 하니 제대로 훈련이 될 수가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른바 '왕따' 논란이다.

### ● 편식 심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이런 사태의 큰 원인중 하나는 성적지상주의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아직도 엘리트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방송이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남북단일팀이나 화제가 되는 피겨 정도다. 수십년간 지속된 악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투자와 훈련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치중됐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과 매스스타트가 대표적이다. 세계랭킹 9위에 머물며 지난 2번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팀 추월은 제쳐두고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매스스타트에 올인하는 게 빙상연맹의 방침이었다. 제대로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 좋은 성적이 나올 턱이 없었다.

원인을 따지고 보면 열악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현실에 있다. 서구나 일본처럼 산업화가 되지 못해 기업 스폰서에 의존하는 동계스포츠, 그 취약한 인프라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적을 내기 위해 그나마 동양인 체형에 맞고 경쟁이 덜 치열한 쇼트트랙에 집중 투자했다. 쇼

트랙 성공을 바탕으로 스피드와 피겨로 영역을 넓혔다가 동계올림픽까지 유지했지만 늘어난 인프라에 비해 선수층과 방송 중계, 언론 보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먹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훌륭한 선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인드와 행정력은 여전히 후진적이다.

### ●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변신하려면

겉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동·하계 올림픽과 육상세계선수권, 월드컵을 개최한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이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내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너무 뒤처진다. 여전히 부실한 기초 체육, 생활체육의 현실은 무시한 채 일부 효과 종목의 메달 수를 가지고 스포츠 강국이라 치장하고 있는 꼴이다. 그마저도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재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얼마나 추락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민낯을 제대로 드러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번엔 틀을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마지막 불꽃이 될지 모른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수많은 시설과 채용한 외국인 코치, 귀화시킨 선수들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사후 활용 방안과 발전 계획을 제대로 세워 평창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예산 낭비의 1회용 행사로 전락시키지 않는 현명한 방법 중의 하나다.

## 푸른눈의 태극전사들 "메달 못따도 괜찮아"

랍신·프리쉐 등 각종목서 한국 최고기록 메달 획득 여부 떠나 지속적인 관심 중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한국은 그간 체격조건, 환경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동계올림픽 세계 10위권 내의 좋은 성적을 거뒀었다. 다만 메달종목은 극히 한정적이었다. 대부분의 메달이 쇼트트랙과 빙상 종목에서 나왔다. 설상종목은 1948년 대한민국이 스위스 생 모리츠 대회에 첫 참가한 이후 70년의 역사에서 아직 메달이 없었다.

2000년대 들어 김연아(피겨스케이팅·은메), 이상화(스피드스케이팅) 등 스타들의 등장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는 윤성빈(스켈레톤)이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썰매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쇼트트랙 일본에서도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의 폭이 좁은 것은 마찬가지다.

이 폭을 넓히기 위해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19명의 선수가 '체육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됐다. 144명의 한국 선수단 중 13%에 해당하는 숫자다. 19명의 특별한 한국인선수 가운데 11명은 아이스하키(남자 7명·여자 4명) 대표팀이다. 나머지 8명은 바이애슬론(티모페이 랍신, 안나 프롤리나, 에키테리나 에바쿠모바), 크로스컨트리(김 마그너스), 프리스타일 스키(이미현, 루지(에일린 프리쉐), 피겨스케이팅(아이스댄싱(민우라, 알렉산더 켈린) 등 그동안 한국의 취약한 종목의 선수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조국에 올림픽 메달을 안기겠다는 부분 꿈을 안고 대회에 나섰다. 아직까지는 메달 소식이 없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티모페이 랍신, 에일린 프리쉐

많은 취약종목인데도 메달도 나오지 않자보니 이들을 향한 관심이 전보다 떨어졌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의 프리쉐는 13일 루지 여자 싱글 1~4차 주행 합계 4분6초400을 기록해 8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국적 선수로는 최고 성적이었다.

러시아 출신의 랍신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16위, 추적 22위, 개인 경기 20위를 차지해 한국 바이애슬론 역사를 다시 썼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프롤리나는 바이애슬론 여자 추적 10km에서 50위, 에바쿠모바는 바이애슬론 여자 15km에서 16위로 선전했다. 김마그너스는 남자 15km 프리스타일 스키에서 45위, 이미현은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슬로프스타일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의 켈린-민우라 커플은 20일 프리스케이팅에서 한복 의상을 입고 가수 소용이 부른 '홀로아리랑'에 맞춰 연기를 펼쳐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역시 메달권은 아니었다.

비록 기대했던 메달을 선물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다. 프리쉐와 랍신의 경우, 2022년 베이징올림픽까지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꾸준한 관심을 기대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